

메시아 콤플렉스

© 2000 년 12 월 아세르 인트레이터

수년 동안 저는 이스라엘의 정치계와 은사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메시아 콤플렉스'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옛날 남성의 자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엔 이스라엘, 혹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더해집니다. 대단히 재능 있는 개인에게 높다란 자존심과 정치적 세력, 종교적 열정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그리고 긴급 상황이 더해지면 바로 메시아 콤플렉스가 됩니다.

예슈아께서는 자연적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존재는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28,30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위대성이 "머리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구원자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커다란 역할을 맡은 이들도 이 단순한 원칙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건 예슈아께 속한 표현이며, 오직 예슈아께서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그림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세대에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이들이 얼마나 재능과 능력이 있는지 놀랍습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 베긴 Begin, 라빈 Rabin, 샤미르 Shamir, 페레스 Peres, 네타냐후 Netanyahu 와 바락 Barak 은 이 무리 중 다른 이들보다 어린 탓에 자신들이 상황을 "구원할" 자로 보기가 쉬웠습니다. 그에 따라 그들은 정부 내 주변인들을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실수로부터 배워 장래에 더 나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슈아께서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엔 겸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상적이지는 않으며, 우리는 일시적 타협의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윤리적 타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항상 절대적 기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협력과 팀워크 가운데 다른 이들과 관계 하거나, 선의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의견 차이 중에도 해답을 강구할 때, 타협은 미덕입니다.

우리 세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사도들, 예언자들과 전도자들), 하나님 왕국의 성공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볼 때 큰 타격과 분열을 낳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역이 주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르심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슈아였다면, 그렇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께서는 당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아셨습니다.

우리 사역의 성공과 우리 사명의 중요성을 보는 것이 우리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보다 우선시 될 때, 교만의 사탄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태복음 16:21-23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베드로는 예슈아를 설득하여 그 삶을 내려놓기 보다는 당신의 사역과 그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도록 하려 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그 완전히 인간적인 태도를 사탄의 공격이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와 사명, 사역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 분이 계시니까요.